

와인의 개성, 당신의 취향... 한국 사로잡은 '벨레 그로스'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325

“당신의 취향을 따르라(Go With Your Palette).”

와인은 정답이란게 없다. 전문가가 좋다고 하지만 내 입맛엔 안 맞을 수 있고, 다른 이들은 고개를 저어도 나에게 인생 와인이 될 수 있다. 와인은 절대적으로 '개취(개인의 취향)' 존중의 영역이다. 와인 메이킹 역시 정해진 바가 없다. 같은 지역이라도 개성 넘치는 다양한 와인이 가능하다.

미국 캘리포니아 와이너리 코퍼케인의 존 로페즈(John Lopez) 양조 총괄 디렉터는 최근 한국을 방문해 벨레그로스와 퀼트 와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와이너리 코퍼케인의 존 로페즈(John Lopez) 양조 총괄 디렉터가 최근 한국을 방문해 벨레그로스와 퀼트 와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뜨일 터. 조 와그너가 설립해 이들 브랜드를 거느리고 있는 곳이 바로 코퍼케인이다. 조 와그너는 나파밸리 '케이머스 빈야드'를 이끌고 있는 척 와그너의 아들이다. 19세부터 케이머스에서 와인 메이킹에 참여했으며, 2001년 벨레 그로스를 통해 자신만의 와인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코퍼케인(CopperCane)을 직역하면

구릿빛 줄기다. 이름 자체가 스타일을 직관적으로 나타낸다. 녹색인 포도나무 줄기는 과실이 완전히 익었을 때 구리색을 띠게 된다. 이때가 수확할 시점이다. 로페즈는 “코퍼케인의 와인은 지역과 품종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수확 시점을 결정하는 이 방식 덕분에 모든 와인이 공통된 스타일과 캐릭터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퍼케인 와인이라고 하면 잘 익은 과



(왼쪽부터)벨레 그로스 라스 알투라스 피노 누아, 벨레 그로스 데리만 피노누아. /안상미 기자

실의 깊은 풍미를 떠올리면 된다. 먼저 캘리포니아의 풍만한 피노 누아, 벨레 그로스다. 캘리포니아 주요 해안 산지에서 싱글 빈야드 와인으로 만든다. '벨레 그로스 데리만 피노누아'는 소노마 카운티에서도 러시아 리버밸리의 해안 인접 지역이다. 바닷바람과 안개로 포도는 천천히 오래 익어간다. 덕분에 충분히 익은 붉은 과실미에도 전혀 밀리지 않는 산도가 인상적이다.

'벨레 그로스 라스 알투라스 피노 누아'는 좀 더 남쪽으로 내려와 몬테레이 카운티의 산타 루치아 하이랜드에서도 고지대에서 만든다. 햇빛을 충분히 받으면서 바람의 영향도 많아 작은 포도알이 껍질은 두껍고 과실은 응축된다. 데리만보다 검은 과실 느낌에 구조감과 질감이 더해진다.

퀼트는 나파밸리를 대표하는 스타일을 선보인다. 역시 이름 자체가 모든 말을 하고 있다. 각각 9개 구역에 걸친 포도밭의 고유의 개성을 퀼트(Quilt)처럼 엮어내겠다는 의도다.

'퀼트 나파 밸리 샤르도네'는 샤르도네가 보여줄 수 있는 서늘하고도 따뜻한,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하고 있다. 포도밭이 나파 밸리지만 소노마 카운티와의 경계 지역에 위치해 과실과 산도의 균형감이 좋다. 특히 이날 선보인 빈티지는 2017년으로 10년 가까이 지났지만 밝은 산도를 지닌 전형적인 나파 밸리 샤르도네의 모습을 보여줬다.

코퍼케인 수출은 아시아 시장에서는 한국이 1위다. 한국인들의 과실 중심인 직관적인 취향에 딱 맞아떨어진 데다 좋은 산도와 미네랄감으로 한국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 덕분이다.

/smahn1@metroseoul.co.kr



문화 단신

시작가 20억 '대동여지도' 채색 필사본 경매 나온다

서울옥션, 오는 28일 5월 경매에 출품 독도 표기... 390cm×685cm 대형 규모 황실 역사적 사료, 근현대미술 작품도

국가등록문화유산인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채색 필사본이 경매 시장에 등장했다. 시작가는 20억 원이다.

14일 서울옥션에 따르면 오는 28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서울옥션 강남센터에서 열리는 5월 경매인 '제192회 미술 품 경매'에는 '대동여지도'를 비롯해 총 145점, 낮은 추정가 기준 약 103억 원 규모의 작품이 출품된다.

이번에 출품된 '대동여지도'는 1861년 김정호가 간행한 신유분을 바탕으로 제작된 채색 필사본이다. 총 22첩의 분첩 절첩식(分帖折疊式)으로 구성돼 휴대가 가능하며, 모두 펼치면 가로 약 390cm, 세로 약 685cm에 달하는 대형 규모를 이룬다.

특히 목판본에서는 보기 어려운 '우산(于山)' 표기가 포함돼 눈길을 끈다. 서울옥션은 이를 현재의 '독도'를 가리키는 표기로 해석하며 "제작 당시의 주체적 지리 인식을 보여주는 학술적 완결성을 드러낸다"고 설명했다.

지도는 도별 채색과 주요 거점의 붉은 색 표기를 통해 가독성을 높였고, 산맥과 물길, 10리마다 찍힌 방점 도로망 등



대동여지도.

을 정교하게 시각화했다. 18세기 백리척(百里尺) 축척법 전통을 계승한 조선 후기 지도 제작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자료라는 평가다. 서문과 도성도 등 부록까지 완비됐으며, 1957년 소장 기록 등 전래 경위도 비교적 명확하게 남아 있다.

조선 후기의 공간 감각은 여기서 단순한 '지도'가 아니라 국가를 읽는 시선이 된다. 산줄기는 혈맥처럼 이어지고, 물길은 시대의 호흡처럼 흐른다. 종이 위에 접힌 조선의 풍경은 정보이자 세계관이었다.

경매에는 역사적 사료도 함께 나온다. 대한제국 마지막 상공으로 알려진 한희순 상공의 생애와 황실 문화를 보여주는 '한희순 상공 관련 사진·자료 일괄', 일제강점기 천도교 청년운동의 흔적을 담은 '천도교청년당 관련 사진 7점 일괄' 등이다.

근현대미술 부문에서는 한국 추상미술 거장들의 작품도 새 주인을 찾는다. 추정가 5억~10억 원에 나온 김환기의 1971년작 '7-III-71'은 뉴욕 시기 '전면 점화' 양식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특징을 보여주는 종이 작업이다.

유영국의 1978년작 'Work'도 시작가 10억 원에 출품된다. 강렬한 원색의 과감한 사용은 산과 하늘, 대지를 삼각형과 사각형의 색면으로 원숙한 경지에도 달한 작가의 예술 세계를 보여준다.

동시대 미술 섹션에는 이우환의 'Dialogue' (7억~12억 원), 데미안 허스트의 'Beautiful, Camp, Sinbad Lozenge Painting' (추정가 1억2000만~3억5000만 원), 1996년 생 작가 이목하의 '크로마키 블루' (1억~1억50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경매 출품작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전시는 15일부터 28일까지 서울옥션 강남센터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뉴스

식민지 타이완서 피어난 여성들의 이야기

대만 최초로 인터넷서널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오른 작가 양창쓰(본명 양튀츠)가 부커상 후보작 '1938 타이완 여행기'로 이어지는 일제강점기 배경의 역사소설 '꽃 피는 시절'(마티스블루)을 내놨다. 양창쓰 작가는 첫 장편소설 '꽃 피는 시절'에서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1920년대 타이완섬으로 돌아가 타이완의 정체성을 탐구한다.



꽃 피는 시절 양창쓰/마티스블루

또한 여성들의 일상과 감정, 욕망을

세밀하고 유려하게 재현해냄으로써 역사 속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꼬집어냈다. '1938 타이완 여행기'의 출발점이기도 한 이 소설은 타임슬립이라는 장르적 장치로 식민지와 계급, 젠더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진다. 동시에 이 소설은 한국어판 서문에서 작가가 밝혔듯이 "소녀와 소녀가 각별한 벗이 되어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성장하는 여성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사찰음식 국가유산 지정 1주년 기념 사진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종로구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1층 홍보관에서 '사찰음식 국가무형유산 지정 1주년 기념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사찰음식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1주년을 맞아 현대적 의미와 전통적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사찰음식 역사와 철학은 물론, 생명존중과 절제의 가치를 담은 사진 자료들이 공개될 예정이다.

사찰음식은 지난해 5월 19일, 오랜 시간 사찰 공동체 내에서 전승된 온수행이자 생활문화라는 점을 인정받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다.

문화사업단은 지정 후 지난 1년간 사찰음식의 전승 기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그 결과, '제4회 사찰음식 대축제'에 약 1만 6000명이 방문했고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프로그램에는 9600여 명이 참여했다. 또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91명이 배출됐다.



▲시진핑 “공존의 길 가야”...트럼프 “미중관계 좋아질 것”
▲미중 정상회담 개최 속 위안화 3년3개월 만에 최고치...1달러=6.7859위안 /사진 뉴스

▲미 정보기관 “中, 이란 전쟁 최대 수혜국...美 패권 흔들”
▲미국무 “中 호르무즈에 이해관계...이란 태도 바꾸도록 설득해야”

▲국제에너지기구(IEA) “호르무즈 열려도 연말까지 원유 공급 부족”
▲나토, 7월 정상회의에 바레인·UAE 등 걸프 4개국 공식 초청